

## 韓國經濟와 韓國經濟學

李 賢 宰\*

오늘 여러분은 韓國經濟와 世界經濟 그리고 現代經濟學의 諸問題를 論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會同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主題가 韓國經濟 發展의 問題를 意識하고 韓國經濟學이 志向할 바를 示唆하면서 內容이 展開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이번 學術大會는 韓國의 經濟와 經濟學을 위해서 寄與하는 바가 至大한 것으로 評價됩니다.

韓國經濟는 解放以來(또는 本格的인 經濟開發이 시작된 以來) 許多한 政策手段이 適用되는 가운데, 그리고 政策循環의 繼起過程이 있는 가운데 試行錯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계속해서 開發實績을 蓄積해 왔습니다. 經濟開發過程에서는必然的으로 그 功過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過程에 있어서의 肯定的 實績으로는 무엇보다도 經濟成長(規模의 成長과 產業·經濟構造의 高度化 등을 포함하는)을 들어야 할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經濟開發過程에서 남겨진 問題點 내지 課題로서는 慢性的인플레이션의 進行, 外債의 累債, 財務構造의 脆弱, 技術開發의 遲延, 分配問題 등을 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62年을 起點으로 하여 始發된 策1次5個年計劃 執行이후 本格的인 開發이 進行되면서 持續된 經濟成長은 이와같은 問題點을 內包·隨伴하면서 進行되어온 것입니다. 물론 經濟成長이 進行됨에 따라 이와같은 否定的 問題點들은 部分的으로 緩和 내지 解決되어 가고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現實的 또는 潛在的 課題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一般的으로 말하면, 均衡的인 開發條件이 具備되고 있지 않은 國家에 있어서의 成長과 安定사이의 필립스의 相衡關係(trade off)의 問題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本學會 名譽會長. 이 論文은 韓國經濟學會의 「第2次 國際韓國人經濟學者 學術大會」(1986.8.18~19)全體會議에서 特別講演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韓國의 經濟成長過程에서 이러한 問題點들이 隨伴되어 온 것은, 첫째로 周知하다시피 極端的으로 劣惡한 初期條件 밑에서 經濟開發이 始發되었고, 둘째로 이러한 條件 밑에서 資本使用的인 工業化가 當初부터의 開發戰略部門으로 選擇되었으며, 셋째로 開發途上國의 理想主義的 傾向이라 할 수 있는 高率成長追求政策을 推進해 온 데 있다고 要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政治史의 過程에는 革命的 轉換(Revolution)이 있을 수 있으나 經濟史의 過程에는 漸進的 變化(Evolution)가 있을 따름이라는 對照的인 關係를 實感케 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經濟의 進行에는 奇蹟이나 飛躍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必要한 條件이나 投入要素는 반드시 充足되어야만 摩擦없고 逆作用없는 經濟進行이 可能하다는 論理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提示한 남겨진 課題들은 高率成長의 必然的인 副産物이었다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그의 解消를 위한 眞摯한 政策的 努力이 持續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와같은 努力은 또한 새로운 經濟發展의 基礎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經濟政策의 一般方向으로서는 成長偏向追求의 止揚에 의한 安定과 成長의 同一次元에서의 政策志向 내지 安定基調위에서의 成長追求가 이 段階 이후의 政策感覺 이어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經濟學同學들끼리 자리를 같이하고 보니, 이와같은 經濟事實과 政策感覺의 變化 속에서 韓國經濟學은 어떠한 呼吸을 해 왔고 어떠한 寄與를 해왔으며 또한 얼마만큼 成長해 왔는지에 想到하게 됩니다. 그것은 本人이 부질없이 말하기 보다는, 이자리에 同席하신 여러 同學들의 呼吸과 學問的 寄與와 成長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往往 韓國의 經濟學 또는 韓國的 經濟學의 定立이라는 소리를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韓國의 經濟現實에 副應한 政策的 處方의 要求의 틈바구니에서 派生되고 있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만, 韓國經濟論 또는 韓國經濟史와같은 分野처럼, 截然하게 經濟學一般動向과는 다른 獨步的인 韓國經濟學 내지 韓國的 經濟學의 定立이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懷疑的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學者들에 의해서 定說化된 經濟理論이나 政策模型같은 것을 韓國과 같은 特定國에 適用 고자 할 경우에, 그 國民經濟의 特殊한 固有條件을 充分히 考慮해서 理論을 理解하고 政策을 消化한다는 것은 그나라 經濟學者의 重要한 所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理論이나 政策模型에서 想定했던 條件과 特定國 國民經濟의 實在條件사이의 乖離의 大小가 그것들의 妥當性을 制約할 것은 宜當한 理致가 되겠습니다. J.K. Galbraith 같은

學者는 經濟發展段階의 類似性에 따라서 同一한 理論이 適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類似한 經濟發展段階의 國民經濟라 할지라도 文化的 背景, 體制, 國民性向 등의 差異에 따라서 理論適用의 妥當性에 상당히 큰 差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政治經濟學의 一部 흐름도 이와같은 問題意識에서 그 脈絡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理解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도 定說化된 理論이나 政策模型의 構成原理 자체가 忽視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韓國經濟學이라는 概念은 바로 이러한 視角에서 理解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經濟學의 一般化가 至難한 作業임을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그 特殊化 또한 대단히 困難한 作業이며 그 試圖의 所産은 學的壽命에 制約을 갖게 마련일 것입니다.

사실인즉 世界經濟學의 主流를 보아도 아시는 바와같이 昏迷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經濟學에 있어서의 第1의 危機는 1930年代初의 大恐慌에 즈음하여 學的으로 支配的인 勢力을 지니고 있던 新古典派經濟學이 有效性을 喪失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危機는 Keynes의 出現(一般理論)에 의해서 새 理論體系가 定立됨으로써 克服될 수가 있었습니다. 經濟學의 第2의 危機는, 1960年代末부터 70年代初에 걸쳐 世界資本主義經濟가 深刻한 不均衡과 不安定에 陷入함으로써 露呈된 케인즈經濟學의 限界를 目睹하면서 Joan Robinson이 이를 宜言한 바는 너무나 有名한 일입니다. 그는 第1의 危機때와 달리, 케인즈經濟學에 代替되는 理論體系가 登場하지 않는 데에 第2의 危機에 있어서의 危機意識을 더욱 深刻하게 느꼈습니다. 케인즈經濟學에 대한 批判으로서 Monetarism, 合理主義經濟學, 合理的 期待假說(Rational Expectations Hypothesis), 供給側經濟學 등이 出現하였으나 이는 모두 Keynes以前의 新古典派理論이 최근의 道具에 의해서 精緻化하여 復活된 데 지나지 않으며, 理論의 前提나 導出過程에 問題가 많고 지나치게 政策指向的이라는 缺陷을 안고 있어, 支配的인 理論體系로서의 定立은 되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第2의 危機克服을 위해서 要求되는 理論內容은 經濟의 效率性이나 成長보다는 分配의 公正과 貧困의 克服이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위에 指摘한 바와같은 새로 登場한 派流들은 오히려 이에 逆行하는 것으로도 把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政治經濟學으로의 還歸問題가 往往 論議되는 것도 注目할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Adam Smith에서 J.S.Mill에 이르는 古典經濟學에 있어서는 家計·企業·國家가 다같이 하나의 體系를 形成하고 있었기 때문에 當時의 經濟學은 政治經濟學(Political Economy)이었던 것이며, 19世紀에 이르러 「經濟學」(Economics)이라는 呼稱이 使用되면서 政府를 除外하고 生産者와 消費者만으로써 構成되는 純粹한 意

味에 있어서의 市場經濟만을 想定하고 市場經濟가 國民經濟를 支配的으로 規律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최근에 이르러 國民經濟에 대한 政府의 強力한 作用이 必要한 것으로 認識되고 또한 그것이 現實的으로 이루어짐으로써 政治經濟學으로서의 還歸의 問題가 다시 關心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經濟學이란 역시 하나의 科學으로서 不完全한 것이고 永久히 修正돼 나가야 할 것이고 理論的 琢磨에 의한 定說的 主流의 形成作業이 不斷히 계속돼 나가야 할 것입니다. J.Tinbergen 같은 學者는 稀少性和 欲望의 問題 즉 經濟問題가 存續하는 限 經濟學은 有用性을 維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이 이 모임은 國內外의 圓熟한 重鎮學者와 年富力強한 新進氣銳의 學者들의 學術大會인만큼 充分히 意見을 開陳, 交換함으로써 經濟學의 危機를 克服하기 위한 새로운 paradigma 形成에 寄與하시고 또한 韓國經濟學의 存在方式에 대해서도 많은 示唆있으시기 바랍니다.